산업통상부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28.(화) 16:30 < 4.29.(수) 조간 > 배포 2026. 4. 28.(화)

차세대 파도 전략(W.A.V.E.)으로 대한민국 조선-해운 동맹 완성

- 산업부·해수부,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 출범식 개최 -
- 조선업 기술 초격차와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W.A.V.E.*」 전략 발표 -
* W.A.V.E : World-class Alliance for Vessels Production & Ecosystem
- 국적선 공동발주, LNG 전략적 협력, 한미협력(MASGA) 확대 추진 -

조선·해운 산업의 상생협력과 산업경쟁력 동반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출범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이하 해수부)는 4월 28일(화) 16시 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 발족식을 공동 개최했다. 조선-해운 양 협회는 지난해 12월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오늘 행사는 이를 이행하는 차원이다.

행사에는 양 부처 장관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해운협회, 국내 주요 조선사와 해운사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조선과 해운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1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 출범

최근 주요 경쟁국은 자국 해운과 조선산업을 연계해 내수 발주를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는 세계 수준의 조선 경쟁력(수주점유율 2위)과 해운 역량(선복량 4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산업 간의 상생과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핵심에너지 수송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내 건조-국적선 운송으로 이어지는 해상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조선-해운 양 협회를 중심으로 조선사·해운사·정부·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점 추진전략으로 「W.A.V.E.*」 방안을 발표했다.

W.A.V.E. 전략은 ❶'W(World Top Class)' :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❷'A(Alliance)' : 조선·해운 전반에 폭넓은 산업연계 동맹을 구성하고, ❸'V(Vessel production)' : 국적 선대 확충과 국내조선사 일감 확보로, ❹'E(Ecosystem)' : 지역경제 기반의 상생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조선-해운 상생발전의 비전을 의미한다.

앞으로 양 업계는 전략협의회의 틀 내에서 4개 전략별 세부과제를 신속히 발굴하는 한편 구체적 실행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전략협의회는 기술개발·실증·발주·금융·제도개선 등 주요 현안별 전문가 TF를 상시 운영하고, 분기별 정례회의에서 정책 건의까지 연계하는 실질적 협의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조선·해운·기자재 등 지역산업 생태계를 아우르면서, 상생과 동반성장 성과를 창출하는 데 보다 주력할 계획이다.

⑵ 국적선 공동발주 선언문 발표 (조선-해운협회 공동)

금일 조선·해운협회는 전략적 협업의 첫 시작으로 "대한민국 조선·해양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국적선 공동발주 선언문"을 체택하고 국내 해운사와 조선소 간 발주 연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동 선언은 최근 고려해운의 1,900TEU급 컨선 6척과 HMM의 2,800TEU급 컨선 10척을 HD현대중공업에 공동 발주한 사례와 같이, 국내 해운사는 경제적인 선가로 최신 기술을 적용한 선대 확충이 가능해지고 조선사·기자재사는 안정적인 일감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⑶ 국내 LNG 수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조선 3사-가스공사-해운협회 공동)

아울러, 오늘 행사에서는 조선 3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해운협회가 "LNG 수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최근 국제상황으로 자원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면서 주요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현실상 에너지 수송 분야의 자립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조선사, 가스공사, 해운사 등은 관련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 LNG 운송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⑷ 조선-해운 주무 부처인 산업부-해수부 협력 강화

정부와 업계는 이날 조선과 해운이 각각의 영역을 넘어 기술개발·실증, 선대확충 등 하나의 산업 전략 아래 움직이는 원팀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이에 산업부와 해수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실증기반 조성, 지역 산업기반 연계 등을 함께 조선-해운 원팀으로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부와 해수부는 공동으로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를 운영 중인 바,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해 6,000억 원 규모의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암모니아·전기추진 등 친환경선박, LNG 화물창 국산화 등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산업부는 핵심기술 개발을, 해수부는 실증 수요 발굴을 적극 뒷받침해가기로 했다. 조선·해운산업 연계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MASGA)에서도 해운·항만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조선과 해운은 국가 경제안보산업으로서 개별 산업 차원을 넘어 수요와 기술, 실증과 제도개선을 함께 설계하고 추진해가는 실행형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W.A.V.E. 전략을 바탕으로 조선과 해운이 다가오는 번영의 파도를 타고 함께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공동발주와 미래선박 기술개발, 산업 생태계 강화 등 오늘 발표된 협력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해운과 조선은 국가 경제와 수출입 물류를 지탱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발전해 왔다.”라며, “이번 전략협의회 출범은 양 산업이 강력한 ‘민관 원팀’으로 거듭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에너지 안보 등의 분야에서 산업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총괄 >	산업통상부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	책임자	과 장	이디도 (044-203-4330)
		담당자	사무관	홍길표 (044-203-4334)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	책임자	과 장	한주현 (044-203-5230)
		담당자	사무관	윤철희 (044-203-5232)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원배 (051-773-5710)
		담당자	사무관	명수한 (051-773-57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조선-해운 원팀 전략 (차세대 파도 전략 - W.A.V.E.)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조선-해운 원팀 전략 : W.A.V.E.

W ▸ World-class	A ▸ Alliance	V ▸ Vessele production	E ▸ Ecosystem
세계최고 수준의 경쟁력	조선·해운 폭넓은 동맹	국적선대 확충 및 조선사 일감 확보	지역상생기반의 생태계 조성

조선·해운 One Team, Ride the Wave

전략 | W : World-calss 세계최고 수준의 초격자 경쟁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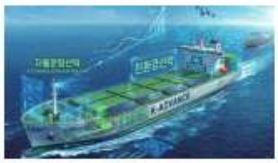
M.AX 얼라이언스 운영



공동기술개발
(친환경 ·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선도
(IMO, ISO 등)



초격차 경쟁력 확보

전략 | A : Alliance 조선 · 해운 폭넓은 협업



신기술 실증 협업
(실해역 운항을 통한 경제성, 안정성 입증)



규제 · 제도 개선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or 규제특례)
신기술 공제 등 으로 기업부담 완화



조선 · 해운 지능화 협력
조선소 · 선박 · 항만을 AI로 연결
안전사고 예방 공동노력

전략 | V : Vessel production 국적선대 확충 및 조선사 일감 확보



해양물류안보 강화



양질의 선박 확보

국내시장 수요
선순환 창출

1 해운사

공동 발주

경제적·고품질 선박 건조

2 조선사



안정적 일감확보



건조역량 유지

전략 | E : Ecosystem 지역 상생 기반의 지속 가능한 상태계 조성

조선 · 해운산업 집적 고도화



지역 · 경제 상생
조선해운산업 생태계

중소 조선·해운·기자재사 상생



공공주도 일감확보



국내 기자재 우선 활용



한미협력(MASGA) 확대

붙임 2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 출범식' 개요**

□ 행사 개요

○ **(행사명)** 산업부·해수부 공동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 출범식

○ **(일시/장소)** **`26.4.28**(화) 16:10~17:25/ **롯데호텔 서울(2F, 에메랄드룸)**

○ **(참석자)** (정부) **산업부 장관, 해수부 장관 /** (유관기관)**한국가스공사**
(조선) 협회장, HD현대, 한화, 삼성, 삼호, 케이, HJ
(해운) 협회장. 장금, 대한, SK, HMM, KSS, 팬오션, 폴라리스, 화이브, 흥아 등

□ 주요 행사 내용

① 대한민국 조선·해운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국적선 공동발주 선언식

- 조선·해운 상생협력 기반 공동발주 활성화 통해 산업생태계 강화

② 국내 LNG 수송발전을 위한 MOU 체결식

- 가스공사·조선 3사·해운협회 간 전략적 협력 MOU

③ 조선해운 전략협의회 주요 추진계획(조선·해운업계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 기반)

-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등 **기술개발** 및 **기자재 실증, 국제 표준 협력**
- 조선·해운·기자재·중소조선 등 **생태계 조성** 및 **해사클러스터 발전**
- 전략상선대·범용상선 등 공동 발주 등 **국내 일감 확보 등**

□ 세부일정(안)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사전 환담	16:10~16:25	(15′)	▸ VIP 사전 환담	VIP
개 회	16:25~16:30	(5′)	▸ 개회 및 내빈소개	사회자
개회사/	16:30~16:40	(10′)	▸ 개회사	兩협회장
축 사	16:40~16:50	(10′)	▸ **축 사**	**산업부**, 해수부
선언식	16:50~16:55	(5′)	▸ **공동발주 상생 선언식**	兩협회장
MOU	16:55~17:00	(5′)	▸ **LNG 수송발전 MOU 체결**	가스공사·조선 3사·해운협회
사진촬영	17:00~17:05	(5′)	▸ 기념 촬영	참석자 전원
주제발표	17:05~17:15	(10′)	▸ 조선-해운 시황 및 상생·발전 방안	산은 김대진 박사
발족식	17:15~17:25	(10′)	▸ **조선·해운 전략협의체 추진계획**	조선협회 ·해운협회

붙임 3 대한민국 조선해운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국적선 공동발주 선언문

최근 추진된 **고려해운 1,900TEU급 6척 및 HMM 2,800TEU급 10척 공동발주 사례를 바탕**으로, 국적선사는 해외 조선소와의 가격 격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조선해운클러스터 발전과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국내 조선소에 공동발주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해운협회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해운·조선 산업의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발주 활성화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동 협력을 다짐한다.

하나. 공동발주 확대를 통해 국내 조선소는 **다양한 선종 건조 역량 확보와 원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해운업계는 국내 조선소에 대한 **발주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일감 창출에 적극 기여**한다.

하나. 국적선사의 **국내 조선소 공동발주 기반을 구축**하고, 특히 중소 조선소와 기자재 산업까지 연계되는 **실질적인 공동발주 모델을 활성화**함으로써 해운·조선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하나. 공동발주 활성화를 위해 **표준선형 개발, 발주 절차의 효율화 및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운·조선 산업 간 협력 생태계를 강화하고 **산업 전반의 상생 구조를 고도화**한다.

하나. 공동발주 확대를 위한 **금융·보증 지원, 세제 인센티브, 관련 규제 개선** 등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한다.

하나. 공동발주를 통해 **해운·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산·울산·경남 및 서남권 지역 등의 중소 조선소·기자재 산업을 포함한 **대한민국 조선해운클러스터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한다.

위와 같은 공동발주 활성화와 협력 노력을 바탕으로 해운·조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경제 도약, 그리고 대한민국 조선해운클러스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2026년 4월 28일

한국해운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장 박정석	회장 이상균